

#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의 결혼관 탐색

## Exploration on Views of Marriage of Gold Miss' participation in Extreme Sports

김이정\*, 송강영\*\*  
숙명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Yee-Jeung Kim(Yeejeung@hanmail.net)\*, Kang-Young Song(sky-soccer@hanmail.net)\*\*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의 결혼관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데 있었다. 연구대상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 2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접 시간은 연구참여자의 주어진 상황에 따라 1~2시간 정도 유동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골드미스의 모험스포츠 입문 동기는 질병(심장병, 갑상선)치료의 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험스포츠의 참여효과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현실세계에서 벗어난 탈출감을 주며, 자신과 일에 대한 유능감이 증진되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행복 및 만족감을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결혼 전 불행한 가정사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경제적 독립 그리고 일반여성과 다른 감각추구성향이 높다는 점이다.

■ 중심어 : | 모험스포츠 | 결혼관 | 골드미스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into the views of marriage of gold miss' who participate in extreme sports. Two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have a specialized job and they take part in risky sports. Collecting data has been performed from December, 2012 to March, 2013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The interview was conducted for a couple of hours with flexibility. These wer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in extreme sports was to cure their diseases such as arrhythmia or inflammation, and this activities caused a stress reduction, sense of competent, way to escape from melancholy daily life, happiness, and satisfaction. Also, unhappy family matter, economic independence, and sensation-seeking were found as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ir views of marriage.

■ keyword : | Extreme Sports | Views of Marriage | Gold Miss |

## 1. 서론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에 따르면 '나이로 보는 미혼여성의 결혼관'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적령기를 29

~30세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경우 대략 이 정도의 연령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하나의 선택으로 바뀌어 가면서 결혼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

\* 본 논문은 2013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과제임.

접수일자 : 2013년 10월 07일

수정일자 : 2013년 11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04일

교신저자 : 송강영, e-mail : sky-soccer@hanmail.net

는 추세이다[17].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3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5]. 이는 결혼율이 감소하면서 현대와 같은 2인·4인가구가 줄어들고 1인 가구인 독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김양희, 이형실(1999)[3]은 결혼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첫째, 결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둘째, 결혼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러 목표 중의 하나로 인식하며, 셋째 결혼 연령 및 유형이 다양화되고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내 초기 결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13][18]은 문헌고찰에 기초하고 있다. 1980~1990년대에는 결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결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영역까지 다루기 시작했다. 즉 2000년대 대부분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는 기혼부부의 결혼만족도, 결혼관계의 질, 결혼 적응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대부분 결혼에 대한 의식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만을 다루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7].

최근에는 질적 연구를 통해 미혼 남녀의 결혼관[2]과 미혼여성들의 직장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19] 등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김양희[2]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정서적 안정, 사회적 기대, 경제적 안정, 사랑의 실현, 자녀출산, 성적인 욕구충족, 부모로부터의 독립,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 결혼하고, 연구대상 중 93%가 결혼할 것이라고 4.4%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결혼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달리 남부러울 것이 없는 골드미스들이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 남들은 위험하다고 기피하는 스킨스쿠버, 스노보드, 스키에[9]에 참여하면서 어떤 결혼관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일반적으로 독신을 원하는 사람들이 독신을 선호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자유유지, 결혼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이

미지, 경제적 부담, 현실도피[2] 등의 이유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남들은 꺼리고 부담스러워하는 모험스포츠에 몰입하는 골드미스들은 일반 여성이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과는 다른 결혼관을 갖고 있을까? 갖고 있다면 어떤 결혼관을 갖고 있으며 왜 이런 결혼관이 형성되었는지 깊숙한 면접을 통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다.

이를 통해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들의 결혼관과 시대정신의 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이득과 문제점 그리고 여러 악순환의 반복을 미리 파악하여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골드미스는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30~40대 미혼여성 중 학력이 높고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며 스스로 성취해나가는 열정과 성취욕이 매우 강한 여성을 일컫는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기존의 양적연구에서의 심도 있는 여가체험 분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들만의 '있는 그대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결혼하고 싶는데 좋은 남자 없네' 증후군[20]에 걸려서 못한 것인지, 모험스포츠 참여가 결혼 생활에 버금가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화려한 독신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험스포츠 참여 전 결혼관과 이후의 결혼관 그리고 향후 결혼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 어떤 생각과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는 골드미스들의 결혼관을 상세하게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 가구 및 독신 가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연구방법

우리의 일상상은 대부분 수치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

의 주관적 느낌, 감정, 내면, 초월적인 것 등은 수치로 해석할 수 없다. 과거 수치화할 수 없는 자료는 비과학적이고 연구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리로 무장한 실증주의의 위세에 밀려 비과학적 학문으로 분류되던 질적 연구가 개인의 특수한 경험과 지식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기고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들의 여가문화와 체험 과정 그리고 결혼관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이나 문화 내에서 연구대상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통하여 사람들의 문화를 규명 기술하는[1]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문화기술지(ethnography)를 선택하였다. 이는 골드미스들을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접촉을 통해 특수한 사회문화적 사고양식과 깊숙한 내면세계의 느낌과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 1.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독특한 생각, 느낌, 주관 등이 매우 중요하다[5]. 특히 확증된 결과보다 가설의 연구과정을 더 중시하고 연구참여자의 깊숙한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 보는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와의 정체성과 함께 감정이입, 상호 신뢰, 이해, 공감대 등 라포(rapport) 형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한다[16].

이에 본 연구자는 여러 대학의 전공 및 교양 스키 수업을 가르친 경험과 약 10여 년 동안 스키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어 연구 수행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스킨스쿠버 마스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연구 진행에 앞서 연구참여자와의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고 서로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스키 및 스킨스쿠버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방을 함께 사용하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다. 시즌이 끝날 무렵 동호회 활동을 함께한 5명에게 연구 의사를 밝힌 후 그 중 연구취지에 동의하고 협조의사를 밝힌 의료계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 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마침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와 연령과 상황이 비슷하여 동호회 활동과 사적인 자리에서도 편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1 연구참여자: C (만 42세)

어머니의 권유로 약학과에 진학하여 졸업 첫 해에는 사촌언니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했다. 매일 딱 막힌 조제실의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순간 대학친구가 스키를 권유하였다. 처음에는 춥고 양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딱 끼는 부츠를 신는 것이 곤혹스러워 중도에 그만 둘까도 생각했었지만, 스키 입문 3년 만에 준강사자격증(현재 레벨 II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대자동차배 아마추어스키대회, 알파인 스키대회, 그리고 기술선수권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지금은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백발 할머니가 되고 두 발로 걸을 수만 있다면 스키를 계속 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수상스키, 암벽등반, 스킨스쿠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동을 섭렵한 한마디로 진정한 운동 마니아이다.

### 1.2 연구참여자: K (만 41세)

간호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친오빠가 운영하는 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매일 환자들의 고통소리와 갑갑한 병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야외활동에 참여했다는 연구참여자는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스킨스쿠버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 안겨 거침없이 호흡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소유자인 연구참여자는 골프, 서핑, 스노보드까지 자연친화적인 운동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몇 년 전 스노보드를 타다 다리가 부러져 대수술을 받고 난 이후 수술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재활치료 기간을 상상 초월할 정도로 단축시키고 직장에 원대복귀하자 주변 동료들은 ‘독종’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계절적 계약을 받는 스키와 스킨스쿠버의 특성과 항상 일에 쫓기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직업 특성을 감안하여 스키 시즌 종료 무렵인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스킨스쿠버는 토·일요일에 실시하였다.

### 2.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성공적인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6]. 면접시간은 스키장, 스킨스쿠버 가게 그리고 교통편을 이용할 때 틈나는 시간 등을 이용하였다. 면접은 일정한 틀과 정해진 시간에 억매이지 않고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 유동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많지 않아 연구참여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녹음기와 필기구를 지참하고 다녔다.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E-mail, 카카오톡과 facebook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 2.2 참여관찰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체험하고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많은 시간을 같이 체험하면서 그들의 생각, 느낌, 감정 등을 기록하였으며, 참여관찰 과정에서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 관찰노트를 활용하였다.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비디오 녹화, 디지털 카메라, 동영상 녹화 등도 사용하였다. 강습을 마친 이후에도 개별적, 집단적 면담을 통해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모험스포츠에서 느낄 수 있는 개인의 체험들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관찰하였다.

### 2.3 자료 분석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이 일어나고 이 과정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4].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전사(transcription)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주제별 코드화(coding)와 배열화, 마지막으로 범주화(categorization)와 의미화(meaning)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였다.

### 2.4 자료의 진실성

자료수집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질적 연구의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구성원간의 검토(member check), 동료검토(peer debriefing)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반성 일지와 연구에 대한 심층적 기술 등을 사용하였다.

### 2.5 윤리적 문제

통계 뒤 익명성을 유지하여 윤리적인 문제를 다소 비껴갈 수 있는 양적 연구와 달리 질적 연구는 직접적이고 대면 접촉이 많아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그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정보 및 익명성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 III. 연구결과

### 1. 골드미스의 직업세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골드미스들은 경제 환경이나 결혼 등 신분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 직종이다. 2008년 여성 취업자 중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19.8%로 전년 대비 1.1% 상승했고, 1998년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지난 1998년에는 무려 9.2%의 차이가 있었으나, 2008년에는 1.9%로 여성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남녀 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24].

이로 인하여 전문직 골드미스는 대체로 높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으며, 자아실현의 기회가 높은 직업으로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 중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여느 직종에 비해 직업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그에 따른 책임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에서의 피곤함과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여가활동과는 다른 모험스포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들 역시 소극적인 참여활동보다는 새로운 스틸과 강한 도전,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고 흥분을 내포하고 있는 모험스포츠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험스포츠는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독창적이고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몰입과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 2. 골드미스의 모험스포츠 입문기

### 2.1 C 약사의 부정맥

어머니 쪽이 심장이 약하다는 C 참여자는 지구력을 비롯한 신체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심장이 별로 안 좋아요. 유전적으로 안 좋은지는 알았는데 부정맥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죠. 체력이 좋아 산에도 잘 올라갈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우연히 직장에서 실시한 종합검진을 받아 알게 됐어요. 과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오래 잘 못타고, 급하게 힘을 가해서 오랫동안 하는 건 못해요. 강도 높게 오랫동안 하는 지구력을 요하는 것들은 못해요.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단거리는 잘 달렸는데 오래달리기 이런 건 못했어요. 그땐 몰랐죠.

### 2.2 부정맥의 치유 방법 - 스키의 발견

약사라는 직업은 종일 조제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근무해 항상 갑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C 참여자는 친구의 권유로 달라진 생활을 말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약해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스키를 탄 이후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부정맥이라는 가족력이 스키를 타고 나서 사라졌어요. 진짜. 보통 부정맥은 스키를 타면 심장에 이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 스키 탄 이후,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심장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 2.3 K 간호사의 갑상선

항상 건강을 자부했다는 K 참여자는 언젠가부터 목넘김이 쉽지 않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목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죠. 음식뿐만 아니라 커피 마실 때도 약간 불편했지만 환자들로 병원이 북적거리고 정신없이 일에 집중하다보면 불편함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일이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정신을 다 빼놓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숨이 물에 젖은 것처럼 몸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피곤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근을 해야 하니가 그냥 그렇게 나가고, 또 나가고 했죠.

### 2.4 이상 징후 발견

동료들로부터 검진을 권유받은 K 참여자는 처음엔 '내가 왜?'라는 생각에 가볍게 웃으며 지나치곤 했으며 특히 간호사로 근무하고 누구보다 항상 건강에 관한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권유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피곤하고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연히 일에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일 처리가 더더지면서 생활에 리듬도 깨졌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고심 끝에 대학선배가 근무하는 00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 결과를 보고 일 년 넘게 대수롭지 않고 그냥 있었다는 것이 바로같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약을 복용하면서 차차 경과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 2.5 운동의 시작

의사인 오빠가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면서 가벼운 운동을 권유했지만 처음엔 '몸이 피곤한데 무슨 운동이냐'며 도리어 오빠를 타박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는 K 참여자. 환자들 고통과 짜증소리가 자신에게 말 못할 스트레스로 쌓여가고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다고 표출하

고 있었다.

약을 복용하는데도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자 담당 선배 의사는 약을 늘리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말 외에는 별 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무작정 집근처에 있는 공원을 걸었죠. 솔직히 재미가 없어 너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스킨스쿠버동호회가 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깊은 바다 속을 자유롭게 누비는 '골드피쉬 스킨스쿠버 동호회!' 잠시 망설이다 주말 번개 모임에 참석했죠. 그렇게 운동을 시작했어요.

### 3. 성장배경

#### 3.1 C약사의 평범한 가정사와 참여 전 결혼관

부모님은 반드시 결혼을 하라 말씀하시고, 언니 오빠는 하면 좋지만 하기 싫으면 꼭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무조건 나한테 선택하라고 했다. 요즘은 부모님께서 예전처럼 독촉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괜찮기는 하더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상태라고 참여자의 설명이다.

안심과 안도의 단계를 넘어서 포기라고도 봐야죠. 혼자 놔둬도 알아서 살겠지 싶으신 것도 있고, 직업 특성상 전문직이다 보니까 알아서 혼자 잘 먹고 살 것 같다는 말씀도 하세요. 큰 언니도 여전히 소개 받아라 하면서도 너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워 경쟁력이 되서 독립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혼자 못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전 혼자서도 잘 살겠다는 것이 보이네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한명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살할까봐 선택하지 않았죠(하하).

어릴 때부터 크게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C 참여자는 (남편감을) 고르느라 못 갔다며 면담 내내 유머 있는 답변을 잊지 않았고 결혼을 하던 솔로로 살던 다 좋다고 상관없다고 속뜻을 내비쳤다.

#### 3.2 K 간호사의 유년 시절과 참여 전 결혼관

초등학교 시절 신발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실

패로 집안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조심스럽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우리는 소위 달동네에 있는 하꼬방 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했고, 엄마는 파출부로 다른 집에 일을 나가셨죠. 아버지는 재기를 꿈꾸셨지만 쉽지 않았고 밤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시면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 갔어요. 오빠와 나는 뒷방에서 부모님의 싸움소리, 엄마의 울음소리를 거의 매일 밤마다 들었죠.

쉽지 않은 가정사를 이야기 해준 K 참여자는 참여 전 결혼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심스럽게 오빠의 외도를 천천히 설명했다.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 탓인지 오빠는 나이에 비해 일찍 결혼을 했어요. 사실 같은 과 동기로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여자 쪽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고 오빠는 선을 보고 좀 부유한 지금의 새언니를 와이프로 맞이했죠. 개인병원도 개업하고 딸도 있었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연히 저도 오빠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오빠의 생활상을 알게 되었죠. 언제부터 점심시간 외출이 잦아지고 퇴근시간이 점점 늦어지면서 오빠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폭력적인 아버지와 오빠의 외도를 보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다는 K 참여자는 선도 보고 소개팅도 하지만,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고 표출했다.

### 4. 모험스포츠의 참여 효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중 직업에서 오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목표성취를 위한 동기부여와 자극 및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처한게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업무생산성과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심지어 직업만족도도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환경적, 정신적, 생리적 측면에서도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심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12].

특히 전문직종의 경우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전문지식의 습득 및 활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보다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게 체감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직에 해당되는 경우 더 큰 스트레스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1 스트레스 해소

답답한 대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설원에서 느끼는 속도감과 스릴감은 일에 지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다는 것에 강한 만족감을 느낀다고 C 참여자는 설명한다.

좁은 조제실에서 처방전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지만 겨울만 되면 스키장과 약국을 시계추처럼 오가고 있어요. 스키장이 문을 여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일주일에 3~4일, 하루 5시간 이상 스키 강행군으로 겨울을 나며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K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뼈와 신경치료가 많다보니 진료 받는 어르신 분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통증의 강도가 심하다보니 고성이 오가고 간혹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다른 병원과 달리 이런 부분을 간호사들이 커버해야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만성이 될 만도 한데 잘 안되더라고요.

#### 4.2 현실탈출

현대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의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C 참여자는 설명하고 있었다. 그런 게 없으면

어느 쪽으로든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다 막혀있다면 스스로에게 해가 되도록 폭발할 수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탈출구가 필요해요. 스키는 제 삶의 한 부분이고 하나의 탈출구를 차지하죠.

K 참여자는 자연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고 있었다. 한 가지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실탈출을 꿈꾸고 있었다.

일단, 스킨스쿠버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나요. 병원에서 화가 나서 나왔더라도 장비를 매고 바다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묘한 신비감이 있잖아요. 돌아오면 화났던 것이 원점으로 갈 때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럼 좀 누그러져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 4.3 유능감

뭐든 쉽게 배우는 편이라 금방 실증을 낸다는 C 참여자는 인터뷰 내내 자신감에 차 있었다.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는 스피드에 매료되어 있었다.

정말 재미있어요. 제 성격이랑도 딱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피드를 좋아해요. 차를 타도 속력을 좀 내는 편이라 창문열고 손 내밀고 타는 것을 좋아해요.

#### 4.4 행복 및 만족감

스노보드를 즐겨 탄다는 K 참여자는 활동이 아닌 외적인 부분에서 느끼는 행복감도 크다고 설명하고 있었고 자연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의지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곤도라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잔의 여유. 하얀 수증기와 주변을 감싸는 부드러운 향기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넓은 통유리 밖으로 설경이 보이고 때로는 느긋하게 석양을 즐길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C 참여자는 30대 말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좋아하는 일 하나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를 선택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찾아다닌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내가 뭘 할까’하고 여러 군데를 돌면서 찾아 다녔어요. 전 항상 도전정신이 있고 스키는 한 번 해보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도전하게 된 거죠. 지금도 눈 감고 스키 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평생 질리지 않는 일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사람 이에요.

## 5. 모험 스포츠 참여 후 골드미스들의 결혼관

우리의 사회문화 및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결혼은 꼭 해야 하는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25]. 미혼이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 혹은 ‘어딘가가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 내리곤 했다. 또한, 결혼은 사회생활을 위해 또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생애주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단계가 아닌 선택할 주제 즉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서 하나의 형태로 존속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201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8년의 경우 68%, 2010년 64.7%에 이어 2012년에는 62.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응답은 47.1%로 같은 기간 27.7%, 30.7%, 33.6%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10]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에릭클라이넨버그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교생활을 더 활발히 하고 시민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흥미로운 결론을 제시했는데 [14], 이는 전체 1인 가구가 25.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화려한 싱글’ 혹은 골드미스들의 증가는 과거의 문제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미혼여성 중 학력이 높고 경제 능력을 갖추고 자기 성

취욕이 높은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들의 결혼관은 어떻게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다.

모험스포츠 참여하기 전 생각과 참여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C 참여자는 설명하고 있다

제가 스키를 타기 전엔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짝은 어딘가 있겠지, 만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안한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스키를 시작하면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키랑 결혼한 건 아니지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한 C 참여자는 가족 단위로 동호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족이 함께 즐기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굳어졌다고 한다.

여가활동을 못하면 전 시집 안 가려고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제 여가 시간을 방해하면 못하죠. 애초에 물어보고 동의 안할 것 같으면 안가요. 움직이는 활동들을 좋아하면 좋겠지만 설사 좋지 않더라도 제가 하는 것은 방해하지 말았으면 해요.

결혼에 큰 뜻이 없다고 밝힌 K 참여자는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활동을 접하면서 삶의 활력소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활동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은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혼은 선택이고 안할 수도 있는데 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고 현재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크게 원하지 않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직업도 탄탄하고 하니 엄마도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또한, 아버지의 폭언과 오빠의 외도를 보면서 결혼관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표출하고 있었다.



전 결혼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30대 중반을 넘으면서 확실해 진 것 같아요. 남이 만나 부부로 살면서 때론 싸우고 그러면서 정 든다는데 전 별로...

솔직히 어릴 때 비취진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 오빠의 외도를 보면서 이성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게 됐어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보면서 혼자서도 의미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게 된 거죠. 제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유와 후덕함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싶어요.

#### IV. 논의

요즘 청년들은 취업, 결혼, 출산(혹은 연애)중 한 가지 이상은 꼭 포기한다고 하여 3포 세대라고 부른다[21]. 이런 신조어가 생긴 것은 우리 사회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젊은이들의 결혼 포기는 미래 성장 동력인 출산이 원천 봉쇄되어 우리 사회의 성장 축과 동력이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안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솔로족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특이 현상이 아니라 스웨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결혼기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경제력 및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들이 왜 결혼하지 않고 남들은 기피하는 종목에 혼기를 훌쩍 넘긴 나이에 목숨 걸고 참가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 있었다.

첫째, 전문직에 종사하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골드미스들은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일반 여성과 달리 결혼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고 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시간간의 사랑을 실현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으며 사회의 전통적 관례를 준수하고 경제적 안정 및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얻기 위해 결혼한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독신 동기를 살펴보면 결혼의 구속감에 대한 거부, 사랑의 변질과 가식적인 결혼 생활에 두려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경제적 부담, 현실도피 등으로 제시하였다[2]. 이와 같이 여성들의 결혼 동기와 독신 동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경제적인 독립이 독신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버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향후에도 독신여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신 및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결혼 전 불행한 가정사가 골드미스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결혼관'이란 많은 생각을 토대로 정립된 결혼에 대한 한 사람의 인식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는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사람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8]. 하여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이나 가까운 가족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회의적인 생각을 갖은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사는 삶이 보다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독신을 고수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최현민(2009)[23]은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 연령, 가족 수, 경제상태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골드미스의 경우 폭력 아버지와 외도하는 오빠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해선 가정은 물론 사회 지도층과 매스컴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는 모험스포츠 참여하는 골드미스들이 일반 여성보다 감각추구성향이 높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암벽등반(빙벽), 번지점프, 윈드서핑, MBT, 스킨스쿠버, 스노보드, 스키 등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심한 부상과 위험성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성을 즐기는 성향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반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신기하고 강력한 경험을 추구하는 감각추구성향이 높고 재미, 궁지, 활력, 정화, 성취 등 긍정적 정서가 높은 편이다[1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들은 성향 자체가 처음부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감각추구성향을 갖고 있거나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면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스포츠 활동은 위험하고 모험적인 요소가 많아 참여 후 성취감 만족감 기쁨과 즐거움을 더 느끼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주는 소소한 행복과 기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골드미스들은 매일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성장, 발전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즐기는 미밋하고 평범한 스포츠보다 순간의 쾌감과 짜릿함 더 나아가 생과사를 넘나드는 모험스포츠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미루거나 독신을 고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의 결혼관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데 있었다. 연구대상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모험스포츠에 참여하는 골드미스 2명이며, 자료 수집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면접 시간은 1-2시간 정도 유동적으로 실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골드미스의 모험스포츠 입문 동기는 질병(심장병, 갑상선)치료의 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참여 효과로는 스트레스 해소, 현실탈출, 유능감, 행복 및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결혼 전 불행한 가정사, 경제적 독립, 감각추구성향의 추구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에릭 클라인버거는 “고잉 솔로 싱글 턴이 온다.”라는 저서에서 결혼을 두려하는 무익한 캠페

인보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혼자 사는 세상을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이가 들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독신 여성을 위해 정부주도로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지원 프로그램인 ‘싱글룸 거주(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과 스웨덴 정부도 1인가구가 다른 1인 가구와 생활하도록 해 주거비를 줄이고 정신적 박탈감도 완화하는 ‘코하우징(co-housing)’을 지원하고 있다[22]. 따라서 독신여성 문제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현대사회의 현실인 1인 가구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4인 가구를 중심으로 많은 정책과 혜택이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싱글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과 국가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비용절하의 선택과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독립, 가정사,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이 각각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단 많은 요인이 결부되어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원인 이외에 어떠한 요인이 골드미스들의 결혼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1] 김경식,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 도서출판 무지개사, 2010.
- [2] 김양희, 문영소, 박정윤, “미혼 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제17권, 2003.
- [3] 김양희, 이형실, *결혼과 가족*,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 [4] 김윤옥,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과 설계*, 서울: 문음사, 2001.

[5] 김이정,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한 독신여성의 여가 체험*,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7.

[6] 김이정, 송강영, “교양댄스스포츠 참여대학생의 스트레스 해소 및 학업성적변화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2013.

[7] 남순현, “한국형 결혼관 척도 개발 연구”, *임상심리학회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8] 다음,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결혼관, *대학보고서*, 2013.

[9] 박봉섭, 박수정, 김민규, “진지한 여가로서의 모험스포츠 발전 방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008, 제32권, 제3호, p.177-185.

[10] 박정현, 유재훈, *문화와 소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30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LG경제 연구소, 2012.

[11] 서울경제, 2012.12.20.

[12] 송강영, 김이정, “전문직여성의 요가수행체험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제49권, 제1호, pp.341-350, 2010.

[13] 신혜성, *한국인의 결혼구조 변화에 대한 분석: 1935~1985년 인구센서스 자료의 15~34세 연령집단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4] 에릭 클라이넨버그,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퀘스트, 2013.

[15] 유진, 강필중, “모험스포츠 참가동기의 이론적 고찰, *체육연구*”,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02.

[16]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4.

[17] 이기숙 김은경 손태홍,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 분석: 맞벌이 주말가족을 대상으로”, *신라대학교 논문집*, 2001.

[18] 이은죽, *한국여성노동자의 결혼관 및 직업관*, 아

시아여성연구, 제21권, 1982.

[19] 이윤석, 구예리, “미혼 여성들의 직장 경험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인구교육*, 제1권, 제1호, 2008.

[20] 이재형, “모험스포츠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참여동기가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제44호, 제4호, pp.207-217, 2005.

[21] *재경일보*, 2013, 4.10.

[22] *조선일보* 2013. 1.4

[23] 최현민, *대학생의 결혼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4]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2008.

[25]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 2012.

저 자 소 개

김 이 정(Yee-Jeung Kim)

정희원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졸업(이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협성대학교 교양학부 초빙교수
- 2004년 3월 ~ 2013년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관심분야> : 질적 연구 및 여가현상 이해

송 강 영(Kang-Young Song)

종신회원



- 1999년 2월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교육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 교수
- 2013년 6월 ~ 현재 :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관심분야> : 여가 및 체육정책